

19 로템나무 아래의 엘리야

Chapter

왕상 19:1~18

찬송가 395장 (너 시름을 당해), 찬양 168장 (내 입술의 말과)

오늘 배울



말씀

1. 위대한 신앙인도 낙심과 절망에 빠질 수 있음을 압니다.
2.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낙심과 절망을 극복할 때 더욱 영광스러운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음을 압니다.

마음 열기



자기가 태양을 떠오르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수탉이 있었습니다. 그가 축사 꼭대기에서 ‘꼬꼬 꼬꼬’하고 몇 번 울기만 하면 태양이 솟아올랐기 때문입니다. 다른 동물들도 수탉에게 ‘수탉아! 너는 정말 멋진 일을 해! 네가 태양을 다시 떠오르게 해주었어!’하며 고마워했습니다.

수탉은 가끔 ‘만일 내가 병이라도 걸리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뿐 아니었습니다. ‘만일 내가 죽기라도 한다면 어떡하지? 그러면 누가 태양을 다시 떠오르게 한단 말인가? 만일 태양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어떡하지? 그렇게 되면 온 세상이 캄캄해지고 추워질 텐데. 그럼 풀도 나무도 다 죽게 될 것 아닌가? 세상의 모든 동물들도 죽고 말겠지? 나는 너무나 중요한 존재야! 난 어떻게 해서든지 매일 아침 축사 꼭대기에 올라가 울어야 해!’ 수탉은 혼자서 이렇게 생각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탉이 늦잠을 잤습니다. 전날 너무 늦은 시간까지 파티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날 아침,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말씀을 이해하기

공과말씀정리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바알 선지자들을 상대로 놀라운 승리를 거둔 엘리야는 또 한 번 하나님께 간구함으로써 3년 반 동안 달렸던 하늘 문이 열리고 이스라엘에 비가 쏟아지게 합니다. 더 나아가 엘리야는 갈멜산에서부터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왕의 마차 앞에서 달려가는 초인적인 능력도 발휘합니다. 이렇게 화려한 승리를 거둔 엘리야는 이제 이 여세를 몰아 이스라엘에서 우상 숭배를 완전히 제거하고 여호와 신앙을 재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과는 달리 이 모든 것을 직접 본 아합 왕도, 그리고 아합으로부터 전해 들은 이세벨도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죽음의 위협을 가합니다. 이에 엘리야는 자기의 생명을 위해 이스라엘에서 유다를 지나 광야까지 도망합니다. 그리고 광야의 한 로렘나무 아래서 심한 좌절과 허탈감으로 하나님께 죽음을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야를 꾸짖지 않고 천사를 보내 그를 어루만지시며 떡과 물을 주어 먹고 마시게 함으로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호렘산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에게 이스라엘을 위한 새로운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기 혼자 남았다고 낙심하는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천 명을 남기실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엘리야가 다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며 우울해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엘리야를 다루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한다면 다시 큰 힘을 얻고 열정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 판에 새기기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시 37:23~24)

The steps of a good man are ordered by the LORD, And He delights in his way. Though he fall, he shall not be utterly cast down; For the LORD upholds him with His hand. (Ps 37:23~24)



말씀을 더 깊게 묵상하기

1. 다음 범위의 성경을 읽고 묵상한 후 제목을 붙이거나 내용을 요약해 보세요.
혹은 느낀 점을 쓰거나 핵심 구절이라고 생각되는 절을 자유롭게 적어 보세요.

(눅 18:1, 7~8)

(갈 6:9~10)

(히 12:5, 11)



말씀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열왕기상 19장 1~18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키시는 방법들을 생각해 봅시다.

1. 하나님께서는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2. 지쳐서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 일어나도록 깨웠습니다(5절).
3. 엘리야가 길을 이길 수 있도록 ()과 ()을 주셨습니다(5~7절).
4. ()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12절).
5. 새로운 사명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15~17절).
 - ① 다메섹의 ()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 왕이 되게 하라.
 - ② 남시의 아들 ()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 왕이 되게 하라.
 - ③ 사밧의 아들 ()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가 되게 하라.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을 받았습니다.
6.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명을 남기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18절).
7. 형제자매가 절망에 빠져 쓰러져 있을 때 나는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약 2:26)

1. 오늘 배운 말씀을 이번 주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지 적어 보세요.

하나.

둘.

셋.

2. 지난 주에 적용하기로 한 내용을 돌아보고 평가를 적어 보세요.



말씀대로 살도록 기도하기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겪는 고난과 실패가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알게 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절망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아울러 낙심하고 있는 형제자매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들의 이야기

나를 비추는 거울



얼굴이 더러운 사람이 거울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상태를 알게 되듯이
사람이 율법이라는 거울 앞에 서면
자신이 지옥 갈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롬 3:20)

마귀가 소유한 가장 강력한 무기

어느 날 마귀는 자기가 오랫동안 애용했던 무기 몇 가지를 부하들에게 경매에 붙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가 내놓은 무기 가운데는 ‘허영심’, ‘교만’, ‘질투’, ‘세상 부귀’등 아주 위력적인 무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 그보다 훨씬 더 비싼 물건 하나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부하가 “이것은 무엇인가요?”하고 묻자 마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절망이라는 것이다. 이 절망이야말로 내가 오랫동안 애용하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을 쓰러뜨린 막강한 무기이지. 그래서 제일 비싼 거야!”





Wednesday

수요말씀

Date. | |

제목 :

강사 :

본문 :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horizontal dotted lines.



Sunday

주일말씀

Date. | |

제목 :

강사 :

본문 :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horizontal dotted lines.